

통번역학 석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졸업생 설문조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사례연구

이지은 유효미 전양주 정희정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Jieun Lee et al. (2014), Graduates' survey in the process of the renewal of MA T&I curriculum: A case study of Ewha GSTI.

This paper deals with the findings from graduates' survey conducted by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in relation with the curriculum renewal of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GSTI) of Ewha Womans University. 313 graduate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in November 2013. The survey questionnaire comprised of 31 questions asked about their profiles such as their majors and professional experiences a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and their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and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Ewha GSTI. The survey results indicate graduates' overall positive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provided at Ewha GSTI. The graduates' employment types and professional practices and their suggestions for T&I education curriculum offer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discussion on the renewal of T&I curriculum of Ewha GSTI. (Ewha Womans University, South Korea)

Keywords: postgraduate translation education, curriculum renewal, market needs, survey of graduates, employment

1. 서론

국제화와 함께 정보, 지식,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전문적인 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부응해 정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국내 통번역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왔고, 통번역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숫자도 증가했다. 전문 통번역대학원 형태로 석사과정을 개설한 학교는 한국외대와

이화여대를 포함해 11개 대학이다(Jeong 2012). 석사과정에서 시작되었던 국내 통번역 학 교육은 이제 학부 및 박사과정까지 개설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다(Chung 2008; Cho 2007; Jeong 2011, 2012; Lee 2012). 나아가 통번역 유형 및 언어의 다각화 등 통번역 분야의 지속적인 변화는 학부 통번역 교육의 확대는 물론 비학위과정 개설로까지 이어졌다(Chung 2008; Lee 2013). 또한 박사과정이 개설·운영됨으로써 통번역학의 학문적 위상이 강화되었고, 관련 연구 및 이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학부와 박사 교육과정 등은 교육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석사과정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석사과정에 제한하기로 한다.

통번역 교육의 주된 목표는 통번역 전문가를 배출해 내는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이 대동소이하다. 대체로 국내 통번역 석사 교육은 이론 전문가보다는 실무 전문가 양성에 치중해왔다. 통번역 교육이 통역과 번역이라는 실제적인 직업 행위(professional practice)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통번역 교육의 목표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Chung 2008: 460; Jeong 2012). 통번역 교육에 시장의 변화와 흐름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적이고 역동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통번역 교육기관들은 시장의 새로운 수요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제, 교육 연한, 교과 과목, 시험 제도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시도해왔다(Jeong 2011; Kim 2008; Ahn 2007). 그렇지만 현재 통번역 교육과정이 교수자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견해, 통번역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통번역사들의 실제 업무나 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Li 2000, 2001, 2007). 이러한 비판이 외국 학자의 견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이 과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데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1997년 개설 이후 우수한 통번역 전문가를 배출함으로써 국내 통번역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통번역학 발전에 기여해 온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은 시장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발전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2015년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본 대학원 교수자들의 내부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대학원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학습경험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참고하기로 했다. 본

고는 이 설문조사 가운데 주요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본고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본 대학원을 포함한 국내 통번역 석사 교육과정에 대해 간략히 고찰한 후 졸업생들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와 그 의미를 논한다.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의 개념과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 그 범위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협의의 의미로는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뜻하며, 광의로는 일련의 교육 목표와 이들 목표에 도달할 목적으로 구성된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경험까지도 포함한다(Greene et al. 1996; Ornstein 1998; Henson 2001).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습자를 위한 모든 학교 교육 활동의 목표와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학습과정과 평가 수단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며, 교과목과 관련되어 세부적인 교수 및 학습 활동 계획을 가리키는 교과과정과 구분한다(Nunan 1998, Jeong 2012 재인용).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교수 활동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며, 효과적인 교육 자료의 개발과 교육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Jeong 2012: 269). 이와 같은 맥락에서 Lee-Yahnke(2006)는 최적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번역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통번역사의 품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Li 2000: 128) 최근에는 별도의 연구 분야로서 주목 받기 시작하여 통번역학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Kearns 2006: 83).

통번역 과목에 관련된 교수 활동을 다룬 선행연구는 많지만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몬테레이 국제대학원 통번역 석사과정에서 통역 교육과정에 대해 다룬 Sawyer(2004)의 연구가 있으며, 폴란드 번역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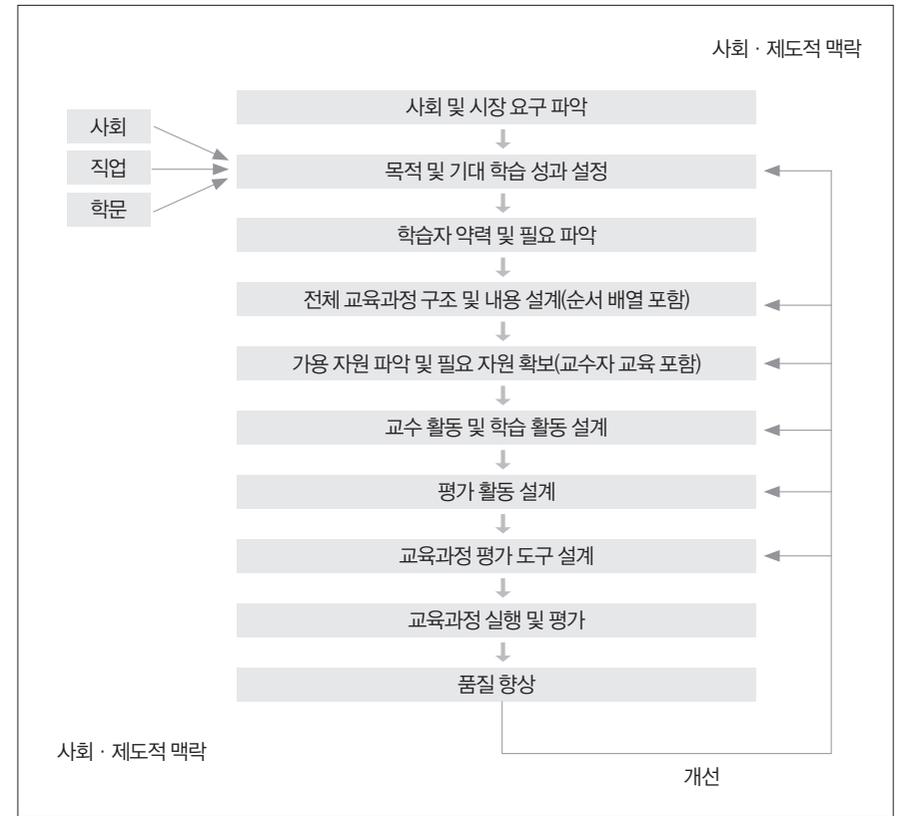
과 볼로냐 과정(Bologna Process)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논한 Kearns(2006)의 연구¹, 번역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한 Albir(2007)의 연구 등이 있다. Kelly(2005)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번역 교육의 다양한 접근법을 소개하고 일반 교육과정 모델과 차별화된 번역 교육과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그림 1 참조). 이 모델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바, 즉 기대학습 성과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및 국가 등 광범위한 사회·제도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업계, 학계 등 기관 외부의 목소리를 목표 단계에서 반영해야 한다. 전문한 바와 같이 실무 현장, 즉 시장의 요구와 변화가 통번역 교육의 목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통번역이라는 행위가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통번역사 교육과정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반영하는 것을 과소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Jeong 2000).

최근에는 IT나 기계 번역, 웹 번역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물론 실제로 업무에서 접하는 통번역 유형의 다양화로 인해 전문 통번역사들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는 통번역 교육에도 새로운 필요를 낳게 되었다. 전문 통번역사 배출을 목표로 삼는 통번역 석사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과 교과 내용, 교육 방법을 최적화하기 위해 이러한 통번역사가 처한 사회·제도적 맥락과 이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요구를 통번역 교과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i 2000, 2001; Kelly 2005).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과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현장의 간극으로 인한 고충을 덜고, 보다 유연하게 전문 통번역 세계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이 요구하는 바 또는 시장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수량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Ahn 2007: 91).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문 통번역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실무 통번역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업계의 수요와 시장의 흐름을 직접

¹ 유럽 지역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유럽 국가간 졸업생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볼로냐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각국의 교육과정을 통합시키고 학제를 조화시켜 2010년까지 유럽 고등교육 지역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Kearns 2006: 217).

그림 1. 교육과정 설계 절차(Kelly 2005: 3)



경험하기 때문에 핵심 이해 당사자 집단으로서 통번역 교육과정 개발 및 개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번역사들이 과거 학생으로서 경험한 교육에 대해 졸업 후 실제로 다루는 업무 내용과 경험에 비추어 평가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동향이나 요구를 유추해보는 것이다. 통번역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업무 범위도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어 전문 통번역사의 실제 업무를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통번역사가 현장에서 접하는 업무와 이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현재 통번역 시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Kelly 2005: 23-28).

2.2.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정에서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되는 대상은 주로 통번역 전공의 분리 또는 통합 여부, 특정 과목의 개설 필요성, 교육 내용의 시장 지향성과 관련된 것이다(Ahn 2007: 90). 일반적으로 통번역 교육기관은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통번역사의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 아래 통번역을 위한 주제 지식과 전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과목과 언어능력 함양을 위한 언어 숙달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Kim 2008). 지난 10여 년 동안에는 실무 훈련 이외에도 통번역 이론의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Jeong 2011: 128).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은 상당한 기간 동안 전체적인 교육 내용의 틀은 유지되어 왔지만 시장의 필요와 변화에 발맞추어 조금씩 변화해 왔다. 해외 통번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국내 시장과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지면 관계상 본 소절에서는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이화여대, 한국외대, 서울외대, 중앙대 통번역 석사 교육과정에 대해 각 통번역대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과과정, 학사 정보, 학칙 및 시행세칙 정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특징과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국내 통번역대학원 중 유일하게 통역과 번역 전공을 입학 시점부터 분리하고 있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은 2학년 진급시험을 통해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졸업자 격시험에 해당하는 종합시험 이외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국제회의통역능력인증시험 및 번역능력인증시험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역학과의 경우에는 1학년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통역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급시험을 거쳐 전문 분야의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공 과목을 더욱 심도 있게 구성해 통역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번역학과의 경우, 1학년 과정 동안 번역 능력과 글쓰기 능력 등을 함양하고, 2학년 진급 후 문학 번역 및 고도의 전문 기술번역 역량 강화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역 전공자에게 번역 과목을, 번역 전공자에게는 통역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전공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역 전공 학생의 번역 능력이, 또 번역 전공 학생의 통역 능력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여러 차례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교육과정에 대

해 한정시켜 논하자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전공 구분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여 통번역대학원 2년 교육과정 전체를 통합 이수한 후 종합시험을 통해 통번역 전공을 구분했다가 90년대 말부터는 1년간 통번역 교육과정을 공통 이수한 후 전공 구분 시험을 통해 국제회의통역, 번역·순차통역, 번역 전공으로 나누는 Y-트랙 모델을 채택했다. 2010년부터는 영어 전공에 한해 입학 시 별도로 번역 전공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외대 역시 국제회의통역반에 번역 실무 과목을, 또 번역·순차통역반에 동시통역 입문 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설립된 서울외대 통번역대학원과 중앙대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역시 한국외대와 마찬가지로 전공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별도의 진급시험 없이 모든 교육과정 수료 후 종합시험 성적에 따라 국제회의통역, 순차통역·번역 그리고 번역 전공으로 구분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서울외대의 경우, 3학기부터 동시통역 교과를 운영 중인 타 국내 통번역대학원과 달리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 동시통역을 제공해 졸업 전 동시통역 기술을 3학기에 걸쳐 충분히 연마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했으며, 국제정치·경제·IT/BT·문화·예술 등 전공교양과 주제별 특강 과목 수강을 필수 교과목으로 정해 주제 및 용어 지식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대의 경우에는 국제대학원에 소속된 특징상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금융 등 국제학 과목을 매 학기 한 과목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통번역대학원들은 애초에 전문 통번역사 양성이라는 실무적 목표를 내걸어 온 만큼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에 크고 작은 변화와 개편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교육과정 설계와 계획이 심도 있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다(Lim 2006; Jeong 2012 등). 4개의 국내 통번역대학원 교육과정을 비교한 Lim(2006)은 국내 통번역 교육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교육과정을 연장하는 등 교육과정의 추가적 개발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Jeong(2012)는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적정성을 검증해 보는 동시에 향후 개정의 기초 자료와 학생 진로 지도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번역 시장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자가 소개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에 의하면, 교육기관의 전임 교수자들이 전문가로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기존의 교육

과정을 정비하고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대학원 부설 통번역센터에서 수주한 번역 과제를 부문별·언어별 수요를 중심으로 분석했다(Jeong 2012: 277-278). 이에 비해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과 평가에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학습자(졸업생)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통번역 시장, 다시 말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번역사들의 활동 유형과 실무에 대한 조사를 겸하는 성격을 가진다.

3. 설문조사

3.1. 조사 도구 및 연구 방법

본 설문조사는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예비 조사로서 본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13년 말까지 본 대학원 졸업생은 총 949명으로 전공별로 구분하자면 통역학과 졸업생은 544명, 번역학과 졸업생은 405명이다. 졸업생들의 언어 전공은 한영, 한불, 한중, 한일로 나뉜다. 참가자를 확보하기 위해 동창회 네트워크를 통해 전공·언어별로 이메일 또는 문자를 보내 설문조사 취지를 소개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사이트인 서베이몽키를 이용해서 2013년 1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설문지 수정 작업을 거친 최종 설문지는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인적 사항과 관련된 5개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응답자의 전공, 전공 언어, 모국어, 연령대 그리고 졸업 연도를 묻는 문항들이다. 두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통번역 경력에 관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번역 경력 기간과 프리랜서 또는 인하우스 등으로 구분되는 활동 유형과 실무 분야 등에 관한 질문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 및 발전에 대한 제언을 구하는 1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최대한 답변이 용이하도록 폐쇄형 문항을 주로 구성했고, 상세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방형 문항을 사용했다. 설문조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은 익명으로 참여하게 했고,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총 10분 내외가 될 수 있도록 문항 수를 조절했다.

본고에서는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21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룬다. 졸업생의 진로와 실무 경력 등에 대한 정보는 재학생들의 진로 지도 등 교육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시장 수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문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문항들은 본 대학원을 선택한 동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럽거나 불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 구분과 진급시험제도, 그리고 개설 과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끝으로 학교 발전에 대한 문항으로 대학원 및 졸업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점에 대해 개방형 문항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조사 자료의 정량적 분석은 서베이몽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개방형 문항을 통해 제시된 조사 참가자들의 코멘트를 정성적으로 분석해 소개한다.

3.2. 조사 참가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13명으로 전체 졸업생의 약 1/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참가자 가운데 통역 전공자는 204명(65%)이었으며, 번역 전공자는 109명(35%)이었다. 언어 전공별로는 영어가 172명(55%), 중국어가 65명(21%), 일본어 53명(17%), 불어 23명(7%)이 설문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 284명(91%)은 모국어가 한국어였고, 외국어가 모국어인 응답자는 18명(6%), 한국어와 외국어 둘 다 모국어라고 응답한 졸업생도 11명(3%) 있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가 72%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14%, 20대가 12%, 50대 이상은 2%에 불과했다. 졸업 후 1~5년이 경과한 졸업생이 41%, 6~10년이 36%, 1년 미만은 14%, 11년 이상도 9% 있었다. 이들의 통번역 경력 기간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1~5년 경력자가 47%로 가장 많았다.

4. 분석 결과

4.1. 활동 유형

전체 응답자들의 현재 활동 유형을 물었을 때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대략 반반씩 나뉘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인 50%가 프리랜서로, 45%는 인하우스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기타 응답자들은 현재 통번역을 하지 않는 졸업생들이므로 추정된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통역 전공의 경우 프리랜서의 비율이 43%로 과반수에 조금 못 미쳤으나, 번역 전공의 경우는 62%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1 참조). 다만 통역학과 출신자 가운데 영어 전공자의 경우에는 인하우스 근무 비율이 62%를 차지해 타 언어 전공에 비해 인하우스 근무자가 많은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인하우스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풀타임 근무자가 95%로 파트타임 근무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1. 활동 유형²

통역 전공		번역 전공	
프리랜서	43%	프리랜서	62%
인하우스	49%	인하우스	37%

4.2. 담당 업무 및 업무 분야

4.2.1. 전공별 분석

통역학과 졸업자의 경우, 통번역을 모두 담당하는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고, 통번역과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2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통역만 수행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했다(표 2 참조). 반면, 통역 전공자이지만 실제 업무 면에서 번역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도 9%였으며, 통번역이 아닌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5%를 차지했다.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영어 전공 통역사는 23%만이 통역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절반 가량(49%)이 통역과 번역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

² 표와 그림에서 제시된 %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국어, 일어, 불어 졸업생은 통번역과 함께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았다(표 2 참조). 통역 전공자라고 해도 통역만 담당하는 경우는 17%에 그치고, 통역과 번역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비율이 약 70%에 달했다는 것은 통역학과의 실무번역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이다.

통역학과 졸업자들이 번역 업무 수행 비중이 상당했던 결과에 비해 번역학과 졸업자의 경우,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58%로 과반수를 넘어 전공 관련 업무만 담당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영어 전공자는 졸업 후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83%에 달해 전체 언어권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불어 전공을 제외하면 전체 언어를 통틀어 번역 전공자가 통역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전무

표 2. 통역 전공자들의 담당 업무

담당 업무	통역 전공				
	전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통역	17%	23%	10%	7%	9%
번역	9%	13%	0%	7%	9%
통번역	44%	49%	40%	40%	18%
통번역+기타 업무	24%	13%	37%	43%	55%
통번역이 아닌 업무	5%	2%	13%	3%	9%

표 3. 번역 전공자들의 담당 업무

담당 업무	통역 전공				
	전체	영어	중국어	일어	불어
통역	1%	0%	0%	0%	8%
번역	58%	83%	44%	50%	8%
통번역	17%	6%	15%	23%	50%
통번역+기타 업무	14%	4%	33%	9%	17%
통번역이 아닌 업무	10%	6%	7%	18%	17%

한 것으로 나타나 비전공인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9%를 차지했던 통역 전공의 결과와 대비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시 말해 번역 전공의 경우 전공 특화 현상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2. 활동 유형별 업무 내용

활동 유형별로도 주 업무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드러났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번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번역 업무만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던 반면, 통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통번역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인하우스 통역사는 통역 업무만 수행하는 비율이 8%에 불과했고, 프리랜서 통역사의 경우에도 통역 업무만 맡는 비율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통역 전공자가 실무에서 번역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시장 현실을 재확인해 주는 응답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번역 전공자의 경우에 프리랜서 번역사들은 번역만 담당하는 비율이 72%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인하우스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41%)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하우스로 활동하는 경우 프리랜서에 비해 업무 폭이 넓고 업무 수행에 있어 보다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는 졸업생의 활동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을 보여준다. 인하우스 근무자가 많이 배출된 통역학과의 경우에 3학기에 걸쳐 번역을 배울 수 있도록 번역 과목을 보강한 것이 적절한 조치였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역기술 습득에 편중된 통역학과 재학생들의 관심을 돌려 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표 4. 활동 유형별 담당 업무

담당 업무	인하우스		프리랜서	
	통역 전공	번역 전공	통역 전공	번역 전공
통역	8%	3%	31%	0%
번역	7%	41%	11%	72%
통번역	54%	23%	39%	13%
통번역+기타 업무	28%	20%	19%	10%
통번역이 아닌 업무	3%	13%	0%	5%

번역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번역 실력을 갖추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번역학과의 경우에는 통역학과와 차이는 있지만 취업 희망자의 경우에는 통역 업무가 함께 요구되는 인하우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통역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번역학과 역시 실무통역 과목을 추가로 개설해 3학기에 걸쳐 통역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4.2.3. 통번역 업무 분야

졸업생들이 진출해 있는 분야가 실제 통번역 업무 수요가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졸업생들의 통번역 업무 분야를 선택하게 했는데, 전공별로 살펴보면 통역학과의 경우 산업 부문에 진출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영, 금융, 경제, 정보통신, 문화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번역학과는 문화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사회, 산업, 경제, 정보통신, 경영이 그 뒤를 이었다. 교과 운영이 시장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대학원에서 전공 특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통역학과의 경우 2012년도부터 순차통역 과목을 경제금융, 사회문화, 국제관계, 과학기술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수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설문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주요 분야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번역학과의 경우 기존 교육과정에는 문학 번역을 제외하면 문화 관련 교과목이 정식 개설·운영되지는 않았으나, 본 대학원이 2013년 BK 특화 전문 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통문화와 인문학 분야 관련 번역 특화 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졸업생들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분야 번역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재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이 제공될 예정이다(Kim 2013). 이는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화 분야에 대한 번역 전공 졸업생들의 높은 업무 비중과 함께 특화 분야에 대한 졸업생들의 꾸준한 니즈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4.3. 교육과정과 대학원 발전 방향 제안

4.3.1. 본 대학원 선택 동기

본 대학원을 선택한 동기에 대해 복수 선택이 가능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65%가 학교 평판 및 이미지를 꼽았고, 두 번째로 많은 32%가 교육 내용을 꼽았다. 세 번째로 교수진(26%), 네 번째로 지리적 위치(23%)를 꼽았으며, 그 외 학제, 장학금 및 학비 등을 선택했다(표 5 참조). 기타 의견 중에는 '통역과 번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입시 방식이나 형식', '학부가 모교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들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졸업생들은 본 대학원의 전반적인 학교 평판이나 이미지 외에 교육내용과 교수진, 학제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대학원 선택 동기

대학원 선택 동기	응답률(복수 선택 가능)
학교 평판 및 이미지	65%
교육내용	32%
교수진	26%
지리적 위치	23%
학제	21%
기타	12%
장학금 및 학비	8%

4.3.2.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졸업생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만족한다(49%)'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11%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그림 2 참조).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7%가 교강사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27%가 학업 분위기를 꼽았다. 알찬 교육 내용과

시설 및 설비도 각각 17%와 6%를 차지했다(그림 3 참조).

그림 2.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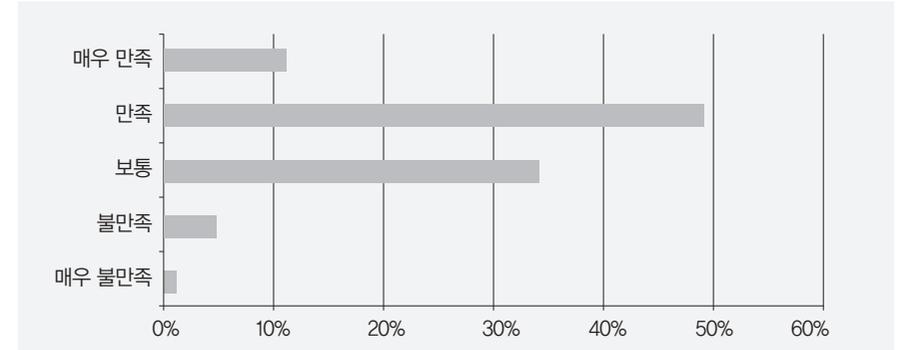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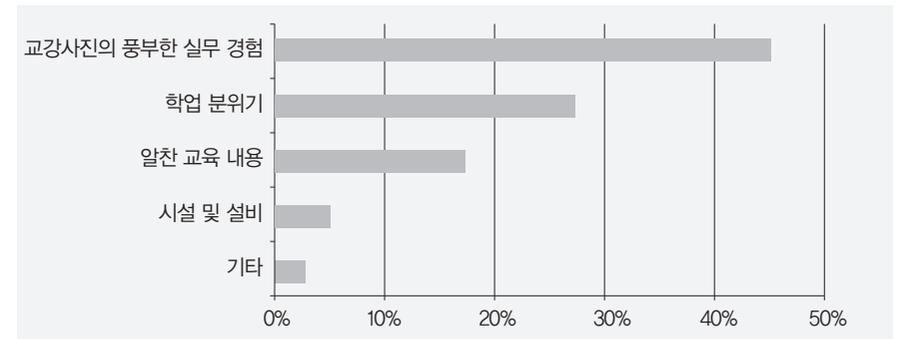


그림 3.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



한편 교육과정 중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으로는 부족한 현장 실습 기회(49%)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통역 전공의 경우가 50%, 번역 전공의 경우는 44%로 통역 전공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만 번역 전공의 경우 부족한 현장실습 기회를 꼽은 비율이 중국어(65%), 일본어(67%), 불어(50%) 전공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 전공은 그 수치가 19%에 불과해 전공 및 언어권별로 현장실습 기회 제공 편차가 큼을 보여 주었다. 이어서 졸업생들은 부실한 교육 내용(15%), 시설 및 설비

(12%)를 불만스러웠던 점으로 꼽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장 중심 수업 강화, 시설 및 설비 관련 등 설문지에 제시된 항목과 중복된 응답이 대부분이었고, 학생들에 대한 강사진의 유대 강화와 관심을 요구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4.3.3. 전공 구분 학제 및 진급시험 제도에 대한 인식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에 이어 본 대학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역, 번역 전공 학과제와 진급시험 제도에 대한 졸업생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학제 구분의 적절성에 대해서 절반을 훨씬 넘는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24%가 '매우 적절하다', 49%가 '적절하다'고 답해 본 대학원의 번역학과와 통역학과 전공 학제 구분에 대해 지지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9% 있었다. 전공 구분 학제가 적절하지 않거나(21명)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3명) 응답한 경우에는 어떤 학제가 바람직한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응답자 중 13명이 '복수 전공 가능'을 꼽았고, 5명이 '전공 구분 철폐'라고 응답했으며, '특화 전공 개설'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2명 있었다. 비록 학제 구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졸업생이 전체 졸업생 중 소수에 불과했지만 복수 전공이나 전공 구분 철폐 등 통번역을 모두 전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니즈가 확인된 만큼 보다 탄력적인 교과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학년 말 시행하는 진급시험 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의 전공별 성향을 분석하면 통역학과와 번역학과 졸업생들의 답에 차이가 나타났다. 통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81%의 다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번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55%가 그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통역 전공자들에 비해 지지도가 낮은 편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번역학과 출신 응답자가 25%이고,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19% 있었다. 특히, 영어 번역 전공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필요하다는 의견(36%)이 필요하다는 의견(33%)보다 조금 많았다.

4.3.4. 개설 과목 제안

현장에 진출한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본 대학원이 제공해야 할 과목을 제안하게 했다. 기존의 교과목 외에 컴퓨터 보조 번역(CAT) 등 기타를 포함해 15개 과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전공별로 제안한 과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통역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통번역 실기(75%)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현장실습

(60%), 직업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56%), 문학·기술·법률 등 특화 분야(52%), 모의국제회의(47%)의 순으로 현장 실무 과목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한편 번역 전공의 경우에는 문학·기술·법률 등 특화 분야(63%)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통번역 실기(58%), 한국어(56%), 작문(47%), 현장 실습(46%)이 그 뒤를 이어 전공별로 순위에 있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번역학과 출신자들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작문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도 통역학과와의 차이이다.

현장실습의 경우, 본 대학원에서 전공 학과 별로 통합 교과목으로 운영한 바 있어 현장실습 기회 부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이 과목이 도입된 2008년 이전 졸업자들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2012년 도입된 교육과정 개편 시 현장실습 과목 운영에 대한 불편으로 각 전공별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로 하고 현장실습 과목이 폐지된 상태인데, 본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졸업생들의 요구도 높고, 교육 효과와 기대 효과도 큰 만큼(Shin 2010) 교과목으로 다시 개설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그 외에 언어별로 관심도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CAT에 대한 중요성은 조사 결과를 통해 재확인되었다. 본 설문조사 시기 즈음에 본 대학원에서는 CAT 설비 구매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하드웨어 인프라 등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규모의 투자 경비가 발생하는 만큼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교육과 연구도 향후 필요하다. 또한 직업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교육, 그리고 법률 등 전문 분야 특화에 대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비학위 과정이나 단기 교육이 효과적인 부분을 구분해 니즈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업윤리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는 통번역 실기 수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서 현장에 대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지 않지만 설문조사 내용 중에 졸업 후 실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업무 조건 협상이나 기타 업무 수행, 조직 내 인간관계 등을 선택한 응답자도 있었는데 전문 직업인으로서 직업 환경과 사회생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다루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5. 본 대학원 및 졸업생 경쟁력 제고 제안

본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졸업생들이 제시한 내용은 전공 특화 강화 등 교육과정 개선과 현장 실무 중심 수업, 선발 요건 및 시험 강화를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

인적 유대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었던 전공 특화 분야 개발과 실무 수업 강화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역과 번역을 구분한 학제가 본 대학원의 강점인 만큼 전공별로 IT, 법률, 문학, 경제, 금융 등으로 더욱 세분화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이를 위해 타 대학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전공 구분 학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도 복수 전공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만큼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및 단기 특강 등 심화 과정 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실무 수업 강화를 제안한 응답 중에는 통번역 프로젝트 유치와 산학 협력 등을 통해 재학 중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업무 협상 및 대인 관계 교육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응답도 눈에 띈다.

한편 졸업생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서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강화, 조직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배양, 기본적인 통번역 실력과 함께 전문 특화 분야 개척에 관한 의견으로 모아진다. 재교육과 관련해서는 재학 중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졸업 후에도 후속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특히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진출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통번역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조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성이 중요한 자질로 간주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활동하는 졸업생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앞으로 교육과정에서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문 특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해석된다.

5. 결론

본고는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통번역대학원의 교육과정 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앞서 실시한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언어 및 전공별로 졸업생들의 경력과 근무 유형 및 실무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들이 제시한 교육과정 및 본 대학원 발전을 위한 제안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전공별로 차이는 있지만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근무하는 졸업생이 응답자 집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교육과정 중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으로 다수의 응답자가 교강사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꼽은 반면, 가장 불만스러웠던 점으로 부족한 현장실습 부족을 지적한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은 현장 연계 수업을 다각도로 보강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업무 환경이나 직장 내에서 요구되는 대인 관계 및 업무 협상 능력 등에 대한 요구가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공별 담당 업무를 살펴보면, 통역 전공자의 경우 통역 업무만 수행하는 비율이 낮았던 반면, 번역 전공자는 번역만 담당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번역 전공의 전공 특화 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통역 전공의 실무 번역 교육 강화가 적절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유형별 담당 업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인하우스 근무자가 프리랜서 근무자에 비해 업무 범위가 넓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다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졸업생의 활동 유형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본 대학원 및 졸업생의 경쟁력 제고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까지 고려했을 때 보다 전공 심화 내지 특화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전공에 따라 과반수 정도의 졸업생이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진출하고 있는 결과를 고려할 때 통번역 기술은 아니지만 기업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룬 설문조사 결과 내용은 언어·전공별로 교수자들에게 제공되어 각 전공별로 검토하고, 유의할 점을 차후 대학원 내부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의 예비 조사로서 앞으로 교수진과 강사진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기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본 대학원 교육과정이 가진 특장점과 함께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통번역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Ahn, I. K. (2007). Curriculum design of GSIT, HUFS: On the basis of a survey.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0(2): 85-103.
- Albir, A. H. (2007). Competence-based curriculum design for training translators. *The Interpreter Translator Trainer* 1(2): 163-195.
- Bang, G. Y. (2013).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of GSIT, HUFS. A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Present and Future of Translation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eld at College of Liberal Arts of Korea University in November 2013.
- Cho, S. E. (2007). Curriculum development in the undergraduat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program.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8(2): 163-191.
- Chung, H. (2008). Interpreter/translator education at the undergraduate level: Principles and practices.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5(1): 459-483.
- Greeno, J. G., Collins, A. M. and Resnick, L. B. (1996). Cognition and learning. In Berliner, D. C. and R. C. Calfee (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New York/London: Routledge.
- Henson, K. T. (2001). *Curriculum Planning: Integrating Multiculturalism, Constructivism, and Education Reform*. London: McGraw Hill.
- Jeong, C. J. (2011).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for translation. *T&I Review* 1: 127-139.
- Jeong, C. J. (2012). Evaluation of translation curriculum development: Based on market demand analysis.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3(2): 265-282.
- Jeong, Y. (2000). Toward translation curriculum which reflects the market reality.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4: 69-86.
- Kearns, J. (2006). *Curriculum Renewal in Translator Training: Vocational challenges in academic environments with reference to needs and situation analysis and skills transferability from the contemporary experience of Polish translator training cultur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ublin City University.
- Kelly, D. (2005). *A Handbook for Translator Trainers*. Manchester: St. Jerome.
- Kim, H. R. (2013). The present and future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Ewha GSTI. A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Present and Future of Translation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eld at College of Liberal Arts of Korea University in November 2013.
- Kim, S. (2008). A thought on translation teaching at the undergraduate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lation competence.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6(2): 5-21.
- Lee, H. S. (2012). A practical proposal on undergraduate courses of introduction to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6(2): 179-198.
- Lee, J. (2013). Action research on legal interpreter training: A case study of Ewha GSTI legal interpreter certificate program.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4(5): 195-223.
- Lee-Yahnke, H. (2006). Is there an ideal curriculum for training of translator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0(1): 133-171.
- Li, D. (2000). Tailoring translation programs to social needs: A survey of professional translators. *Target* 12(1): 127-149.
- Li, D. (2001). Needs assessment in translation teaching: Making translator training more responsive to social needs. *Babel* 46(4): 289-299.
- Li, D. (2007). Translation curriculum and pedagogy: Views of administrators of translation services. *Target* 19(1): 105-33.
- Lim, H. O. (2006). A comparison of curricula of graduate school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Korea. *Meta* 51(2): 215-228.
- Nunan, D. (1988). *The Learner-centred Curriculum: A Study in Secon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nstein, A. C. and Hunkins, F. (1998). *Curriculum: Foundations, principles, and theory*. Boston: Allyn & Bacon.
- Sawyer, D. (2004). *Fundamental Aspects of Interpreter Educ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hin, J. (2010). The importance of translation practicum/internship course for graduate students in translatio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2(2): 103-122.

Corresponding author's email address

jieun.lee@ewha.ac.kr

About the author

Jieun Lee is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and currently the head of the Ewha Research Institute for Translation Studies of the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legal interpreting, interpreter and translator education and her work has been published in peer reviewed journals such as *Applied Linguistics*, *Multilingua*, *Interpreting*, *Perspectiv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the Law*, *Journal of Refugee Studies* and *Meta*.

Hyomi Yoo, Yangju June, and Heejeong Jeong are currently enrolled in PhD coursework at the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y have had years of practice as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before they undertook PhD study.